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우리의 감사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 및 제5차 성찬식(1~5부예배)

자신과 환경에 초점을 둘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참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살후 2:13)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

참 회개는 무엇인가!

가신 예수님이 주가 될 때에 이루어진다(행 2:36~38).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눅 24:44~47; 행 17:30~31). 회개를 엄하게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시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을 살펴보자.

죄를 '가지의 죄, 뿌리의 죄'라고 이름을 붙여 보자. '가지의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죄들이 가볍기 때문에 '가지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뿌리보다 더 잘 볼 수 있으며 감추어져 있는 뿌리로부터 힘을 얻어 생명을 끌어내고 있다. 게으른 것을 보고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게으름은 현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가장 극악한 죄 중의 하나이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규례 중의 하나이다(창 1:28~29, 3:17~19). 그러므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그 근본은 인간의 마음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동기에 근거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의 죄성 속에 숨겨진 것은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앙의 엄청난 힘이다. 이 불신앙이 계속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만든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무결한 구원자이다(롬 6:23). 회개는 분명히 인간의 행태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할 필요도 없으시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행 11:16~18;

행 17:14). 회개는 하나님께서 거쳐 주시는 신령한 변화가 임할 때 인간 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그러나 인간이 변화되고 새 창조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은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나타낸다(엡 2:10).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한다.

신약에서 사용된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롬 6:4~5).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며, 본과 악의와 거짓 말 같은 악한 행위를 벗어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임을 나타내 준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는 것과 고행의 길을 걷는 것을 섞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죄로 인한 마음 속에서 이루시는 것은 고행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통회와 심령 속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시 51:17). 세상적인 슬픔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주심으로 오는 눈물이 있다. 세상 근심은 사람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고후 7:10; 욕 2:12).

진정한 회개는 영혼을 살리는 애통이며,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 다시 깨어나 영적인 삶을 살게 한다(시 12:10~14). 그러나 세상적인 슬픔은 사망을 가져오며 책임을 가지고 일하기를 싫어하게 만든다. 또한 인간의 영혼을 차디찬 돌같이 굳어지게 한다. 참 회개는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것이므로 다시 삶을 생명력 있게 살도록 바꾸어 준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진것으로 내려놓을 때에 오는 기쁨은, 전에 전혀 느껴보지 못하였던 진정한 기쁨이다(눅 7:48, 50).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슬퍼 애통하는 자들을 말리지 말라. 그들에게서 죄로 인한 슬픔을 빼앗아 버리면, 참 회개로 인한 놀라운 기쁨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로 인한 진정한 애통함이 있는 참 회개를 하자. 아멘.

THE ROAD JESUS TOOK

⁽²¹⁾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show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from the elders and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be killed, and be raised up on the third day. ... ⁽²⁷⁾“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in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His angels, and WILL THEN REPAY EVERY MAN ACCORDING TO HIS DEEDS. ⁽²⁸⁾“Truly I say to you, there are some of those who ar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unti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Matthew 16:21~28)

After ministering to the crowds, Jesus often retreated to a quiet place with His disciples to relax, eat, and enjoy each other's company. During these special times, Jesus frequently centered His discussions on important spiritual lessons. In today's Bible passage, Jesus is having one of these special private sessions with His disciples about His upcoming death. This was a most difficult lesson for His disciples because their hearts and minds were tuned toward their own way of thinking, which was completely contradictory to God's plan. Jesus was walking on God's narrow pathway, which was headed to the cross on Calvary. His disciples were walking on the wide pathway, which was headed toward professional recognition. They thought Jesus, the King of all kings, would set up His kingdom in Jerusalem, and that they would fill the high positions next to His throne. They had served under Him for several years, and had seen His power and heard His messages. They believed in Him! The disciples didn't want to go on the narrow pathway, and they didn't like the narrow pathway because it wasn't headed toward worldly success. Like the disciples, we all need quiet times with our Lord Jesus Christ. It's during these sessions that He gives us great lessons, life-changing insights, but unless we're walking on the narrow pathway we won't understand them. We will end up going against our Lord. The narrow road is God's only road, all other roads lead away from Him.

Christ took the narrow road. Jesus unveiled the narrow path to His disciples,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show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from the elders and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be killed, and be raised up on the third day" (Mt. 16:21). His disciples were longing for success here and now. They wanted the beautiful and wonderful kingdom of God to take shape on earth during their lifetimes. They knew Jesus wa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y believed Jesus when He told Peter,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Mt. 16:18). Their problem came when Jesus told them which pathway He was taking. They thought God's kingdom of glory was going to be established the easy way, but Jesus was taking an entirely different way. Jesus was going to the cross. Can you imagine how shocking the revelation of the cross was to the disciples? Can you imagine how confused they were that Jesus had come to die? Jesus followed the narrow pathway from the moment of His birth. Our sins took him from the manger to the cross. This was the purpose of His first coming. This was God's plan. This was not what the disciples expected.

The common reaction to the narrow pathway is negative. Right after Jesus told His disciples about His death,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saying, "God forbid it,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Mt. 16:22). Jesus answered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God's interests, but man's" (Mt. 16:23). Like Peter and the rest of the disciples, the world would like to find another way, an easier way. People want to travel on the wide pathway that leads to earthly success. Many prefer a code of conduct for salvation. Sadly, there are churches and pastors preaching easier ways, other ways; but religion, money, and good deeds cannot save anyone. Only Jesus' blood can wash away sin (Rev. 1:5). The Bible warns,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wanting to have their ears tickled, they will accumulate for themselves teachers in accordance to their own desires, and wi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will turn aside to myths" (2Tim. 4:3-4). Right now, people all over this world are looking for another way, but there isn't any. The narrow path is the only way that leads to heaven.

The call to the narrow pathway is clear. Jesus said,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t. 16:24). Denying yourself every day is not fun or easy, nor is taking your cross and following Jesus. We must surrender our will because it is the only road to heaven. It is the exact road that Jesus followed to the cross. The narrow path is about surrendering and denying yourself. Jesus showed us His submission in the Garden of Gethsemane, "And He went a little beyond them, and fell on His face and prayed, saying, 'My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Mt. 26:39). Through self-denial and obedience, Jesus followed the narrow roa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hil. 2:8). Jesus surrendered Himself until death. Do you realize how much our sinless Savior surrendered?

My dear friend, the road to eternal life is filled with sacrifice and service. Jesus' narrow path to the cross is the same narrow path for you to heaven. What road are you taking? Jesus walked the narrow road before you, so you don't need to navigate. All you need to do is follow Him. Will you follow Jesus? Will you surrender your will to obey God's will? Jesus said,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For what will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forfeits his soul? Or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in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His angels, and WILL THEN REPAY EVERY MAN ACCORDING TO HIS DEEDS" (Mt. 16:25-27). Amen. 

다음 주일 설교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²¹⁾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살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 ⁽²²⁾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²³⁾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21~28)



김성판 목사

우리들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쉬고,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은 중요한 영적 주제에 대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특별히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인 자신이 원하는 길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좁은 길을 걸여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넓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보좌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전혀 관계없는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통찰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주님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다른 모든 길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리스도는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살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마 16:21).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살아 생전에 아담과 찬란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쉽게 세워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제자들을 얼마나 당혹스럽게 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좁은 길로만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말 구우에서 십자가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일반적인 반응

좁은 길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은 후에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음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마 16:22).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좀더 쉬운 다른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보장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행동 규범을 선호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교회들과 교역자들이 좁은 길이 아닌, 더 쉬운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돈, 선행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계 1:5). 성경은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아무도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딤후 4:3~4).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고 있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른다

좁은 길로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즐겁거나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가셨던 예수님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좁은 길은 포기하고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갯세마네 동산에서 절대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있도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9). 자기 부인과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 없으신 우리 구주께서 어디까지 복종하셨는지 진정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삶으로 향하는 길은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합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의 좁은 길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 걸어야 할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서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방향을 조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27).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을 얻고자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5~27). 아멘.



십자가의 은혜

천국 속에서 눈물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만난 후 찬양대원으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부족한 저를 이끌어내시어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크게 내세를 짓도, 그리 모자랄 것도 없는 그런 순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로 장임을 받은 뒤에도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의 불같은 성격을 버렸습니다!” 정말 버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내 의지로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님 없이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았지만 변화된 것으로 착각하며 그대로 살아가던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강하지도 않고였고, 연약하지도 않고였고, 채찍을 들어 성전 상인을 내어 쫓을 때도 사람과 운구가 함께 하였으며, 빌라도 앞에서 당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단 한마디 말씀도 없으실 때조차도 운구하셨을 것을 깨닫지 못했던 저를 주님께선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어이없이 순식간에 늘 강하다고 생각하며 자랑했던 나의 육신 중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끊어놓으심으로 급한 발걸과 성정을 늦추시며, 교만함과 자신감, 자존심을 고통을 통해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음을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다듬어 운구케 하시며, 주님을 따라 자기 부인을 알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꼭꼭이 누워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을 벗으라”(출 3:5). 세상 속을 향해, 교회를 향해, 내 의지로 달려 나가던 나를 포기하고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임을 이제야 진정 깨달았습니다. 내 권리도, 내 자신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시며 나를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미련했던 제가 이제야 그 아픔을 통해 알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셨던 모든 권리, 하나님이 되는 권리도, 정상적인 인간의 삶도, 육신의 가족과의 행복한 삶도, 돈, 명예, 생명까지 친히 포기하시며 자기 부인으로 평생 순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당신을 닮기 원하며 오늘도 절박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제 입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기도케 하시며 진정한 포기와 함께 오늘도 순종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류기영
(장로, 14교구장)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6일(월) ~ 7월 14일(화)	22교구 1팀	김성수
7월 7일(화) ~ 7월 15일(수)	12교구 2팀	오재일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9일(월) ~ 7월 7일(화)	6교구 2팀	정경옥
6월 29일(월) ~ 7월 7일(화)	8교구 1팀	김광선
7월 1일(수) ~ 7월 9일(목)	14교구 1팀	이희우
7월 1일(수) ~ 7월 9일(목)	16교구 2팀	지정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2일(월) ~ 7월 1일(수)	11교구 1팀	김현배
6월 23일(화) ~ 6월 28일(일)	11교구 2팀	정영래
6월 23일(화) ~ 7월 1일(수)	2교구 1팀	한현서
6월 23일(화) ~ 7월 1일(수)	12교구 1팀	임희민
6월 23일(화) ~ 7월 1일(수)	4교구 1팀	임태수
6월 25일(목) ~ 7월 2일(목)	24교구 2팀	왕순화
6월 25일(목) ~ 7월 2일(목)	17교구 2팀	남준호

수확 칼럼 ⑧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순절에 성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다. 이로써 신약교회는 탄생하였다.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령에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릴 때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신다. 교회를 더욱 돈들이 세워가시며 그 안에서 참된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요 14:26) 이시다.

1. 성령을



2. 믿사오며



3. 거룩한



4. 공회와



5. 성도가



6. 서로



7. 교통하는 것과



승리의 기쁨, 영혼 추수의 기쁨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선교였다. 먼저 믿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저 그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선교를 가졌다고 마음 먹는 것도, 팀 훈련을 한 것도, 파송되어 선교지의 영혼을 만난 것도 내 의지대로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내 의지와 내 판단이 개입하지는 그 순간, 주님의 뜻하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내 맘 속의 어지러움과 주님과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괴로움 속에서 힘만 들고 지쳐갔다. 이렇게 어리석고 중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랑이시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의 대장이 되어주마.”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격려하시며 주님의 귀한 영혼 추수의 발로로 특별히 뽑아서 보내어 주셨다. 공회에 내리자마자 귀중한 때인 등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위해 왔다는 선교지에서 또 다시 무너지고 있는 나의 모습, 선교지로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익숙하지 않은 환경들로 인해 그동안 날 지켜주신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딘가로 실종되고 말았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믿을 없는 연약한 나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은 회개가 감사로 변하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곳곳에 심겨진 아름다운 주의 형제 자매도 만나 보았다. 많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주 안에서 교제를 하게 하였고, 천국에서 만난 그 영혼들을 만나니 그 기쁨 또한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었다. 연약한 부분을 절대 가만두지 않는 마귀의 공격과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한 내 입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그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영혼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 주님, 저들도 우리들처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며 선교를 떠나왔다.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저 내 더러운 입술과 어눌한 언어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왔음을, 주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사역보고를 회개함과 감사함으로 드린다.

이시은(장사, 6교구)



제2차 청지기훈련

2009년 제2차 청지기훈련

‘특별 기도’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사랑의 결속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흘리신 피와 땀, 그의 거룩하신 삶, 고난의 죽음에 의지하여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도하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충현교회에 와서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청지기훈련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의 첫 번째 청지기훈련은 3층 꼭대기에서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지기훈련은 안내 선다고, 또 이리저리 성도님들께 자리 양보한다고 말슴에 제대로 집중을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지기훈련! 이번에는 예배 40분전부터 자리 잡고 앉아 기도로 준비하고, 말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히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슴을 듣는 내내 회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연 나는 그동안 얼마나 주님께 기도를 하고 살았나? 기도가 필요 없으신 우리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 기도를 하셨는데, 매일매일 아니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 못하는 나는 과연 얼마나 기도를 하고 살았나? 정말 주님께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지 못한 אני, 그동안 나의 자존심을 앞세우며, 나만을 바라보고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슴을 듣는 내내 저는 주님께 이런 기도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무명, 1교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청지기훈련은 오랜 기간 준비된 말슴의 한국 전지여서 그런지 주님의 입재 앞에 모두 하나가 된 순간순간이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 특별한 절기 때처럼 말슴과 찬양이 화답하듯이 이어지면서 은혜의 날개 안에 하나가 되어, 예비하여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날 새벽에 잠속에서 지옥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잠을 지켜야 한다면 따라나서지 않는 천청아버지를 보면서 아직도 기도의 양이 차지 않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골다골증이 심해서 늘 통증에 시달리시는 어머니는 오히려 힘들어 하시지도 않고 두 시간 여계 친 시간에 내내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이었다.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선포한 엘리야와 심령한 삶의 시작을 열어 놓은 아담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중보기도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게기가 되었다.

이희복(집사, 24교구)

●위선의 삶을 산 나의 모습

지금까지 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정반대였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내 필요에 의한 기도였고, 기도하는 착한 위선의 삶을 산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말슴이 내 안에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위하여, 주님 사역에 전적으로 종성하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조용한 시간, 세상의 대담이 아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려며 울부짖듯 호소하시는 위임목사님의 말슴을 깊이 간직하며 이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경재(성도, 14교구)

●일본 일초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쁘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기도할 상황이 안된다고 핑계를 대며 변명을 늘어놓는 어리석은 나. 하나님께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을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믿는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일년 전 내게 두 번의 수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일본 일초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슴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권선주(성도, 8교구)

●기도하는 믿음의 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를 평생처럼 하지 않다가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놓고 이기적인 기도를 가끔 드렸던 나는 말슴 중간 뜰름뜰름 가슴이 아파왔다. 나를 돌아보며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받아 주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나만의 장소에서 주님께만 드리는 깨끗한 기도, 은밀한 기도, 진심이 있는 믿음의 기도, 주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있음을, 성령의 역사함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딸이 되어야겠다.

임정숙(권할, 12교구)

●기도의 우선순위

이제껏 나는 고난이 있을 때나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정해놓은 소원의 기도를 드리며, 나의 계획과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맞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긴다 하면서도 “주님, 이것만은, 이번 한번만, 주님 여기까지만요.”하는 조건부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을 수 있어, 난 연약한 인간인데...” 하며 스스로 위안을 하였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슴을 계속 들던 중 내가 간파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도에는 자아중심적인 욕심의 기도가 1순위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힘 주실줄 믿습니다.

오명자(집사, 15교구)

●간절한 기도

청지기훈련 말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과 강력한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살월(의선부)

제2차 정기기원회 / 맥추절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눅 6:12)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네오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아침을 맞이하던 나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이고 아주 위급한 일이 생길 때,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온갖 협박과 협상을 내세우면서 담장이라도 내 전부를 드릴 듯이 통보를 한다. 물론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지만, 나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안절부절하는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다. "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네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 정결하게 하소서. 영혼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눈을 흘리게 하시며, 주님의 무릎을 덮어 열방과 민족을 위해 무릎 꿇게 하소서. 주님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구가 나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신미애(집사, 11교구)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나는 기도에 인색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특별 기도'라고 하면 경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잠깐만 기도하고 마음에 짐을 벗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 개라도 굶으면 폭식하게 되는데 기도를 굶어도 고프지도 않고, 어느 날 한개번에 기도하고 나면 "이젠 됐지!" 하면서 오랫동안 굶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회개합니다. 굶은 기도라도 온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다는 말씀은 기도라는 것은 진정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며,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십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현연옥(집사, 20교구)

●너 성결기 위해

덥고 힘들어서 처음에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지만, 이어지는 찬양과 말씀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왜 거짓 기도를 하십니까? 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이런 기도는 다 위선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온통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나도 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필요 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하루하루를 살았고, 또 내가 필요로 기도 할 때는 형식적인 기도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찾을수록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친구,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두렵고 싫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나의 결모습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 세상의 겉대기를 더 사랑하며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마지막 찬양 <너 성결기 위해>를 부르면서 많은 회개의 눈물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따뜻한 은혜가 넘침을 느끼며, 교회에 올 때의 상한 마음 또한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정현(집사, 17교구)

●호흡하듯 주께 기도하길

'특별 기도'라는 제목으로 위임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순간순간 은혜주시고 그동안 연습해온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니 기쁨이 생겼듯 하며 가사 하나 하나가 나의 맘의 고백이 되어 드러지니 나의 몸이 화끈거리고 눈에는 어느새 회개의 눈물이 눈가를 적신다. 수년간 기도를 해왔어도 나의 소원이 주님의 뜻과는 너무 멀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하지 않고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였으니, 진정한 기도 보다는 믿을 없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드렸음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보나 가정을 보나 주변을 보나 특별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영혼을 건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주님 품안에서 호흡하듯 주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권백용(집사, 22교구)

성자의 길

맥추절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이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그 하카츠르'이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란 뜻을 가지고 있다. 맥추절(출 23:16)은 후대에는 칠칠절, 오수절 등으로 불리었다. 칠칠절(七七節)은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初實節)로부터 시작하여 7주간의 곡물 추수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오수절(五旬節) 또한 추수기와 관계된 말로, 이 날이 초실절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제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 외에 칠칠절, 초막절과 같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로 모였음에서 유래된 말이다.

한국에서는 쌀 추수에 맞추어 지켜지는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보리 수확과 관계되는 맥추감사절 역시 계속 지켜져 오고 있다. 이러한 맥추감사절은 한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요한 것은, 감사가 단순히 영성한 삶으로 인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참된 영성은 이 세상의 일이 될 짤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눅 6:22). 세상에서의 영통함이 없을지라도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 새 가 족 을 한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13	김무선	2	장년1부	윤상규(11)	1131	이숙자	6	장년2부	정운술(24)
1114	김무현	1	대학부		1132	장지연	6	청년1부	이순재(24)
1115	안현지	6	대학부	권진숙(6)	1133	박영자	13	청년4부	한순자(13)
1116	김태현	21	청년2부	김은영(21)	1134	문영철	2	장년1부	이명균(2)
1117	송창성	22	소망부	박옥희(15)	1135	이연자	2	장년1부	박태순(2)
1118	양송학	4	청년1부		1136	신상진	11	청년1부	김인숙(11)
1119	전홍비	2	청년1부		1137	유미은	13	청년1부	김철남(13)
1120	김진진	4	청년1부		1138	윤병렬	21	청년1부	이지현(21)
1121	김희선	4	장년1부		1139	한주현	12	청년1부	김안희(15)
1122	이진우	4	청년1부	이은실(16)	1140	이기민	19	청년2부	김화선(2)
1123	서영순	21	장년1부	임연수(21)	1141	전영진	10	장년3부	이남숙(12)
1124	이상우	25	사망부	심영애(16)	1142	전난희	10	청년2부	이남숙(12)
1125	박영배	21	청년1부	박영근(1)	1143	전성희	10	대학부	이남숙(12)
1126	정준술	19	장년4부	장정예(22)	1144	김태훈	25	해바다부	박종현(25)
1127	김현경	8	청년2부	장은숙(9)	1145	박은정	21	청년1부	한성화(24)
1128	백옥희	6	장년3부	박미혜(21)	1146	백현진	22	청년1부	김태순(21)
1129	최성은	2	장년3부		1147	송영란	1	소망부	강신순(1)
1130	신숙숙	2	장년3부		1148	오영란	1	청년2부	강신순(1)

* 중년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임

- 1. 정기 4회 기도회
일시: 7월(화) 10:00 교회 중합
장소: 중현 기도원
- 2. 정기당회
일시: 8월(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발세

- 1. 이희수 은퇴행사(1교구 연주2교구) / 6월 27일
별세, 6월 28일 장례
- 2. 이광수 성도(이광규 집사의 부친, 장곡수 권
장자의 사부, 22교구 수련2교구) / 6월 27일 별세,
6월 29일 장례
- 3. 김한희 성도(장재현 집사의 남편, 김태형 성
도의 부친, 김명봉 집사의 사부, 9교구 군자송
장곡구) / 1일 별세, 3일 장례
- 4. 김삼재 태고집사(김자영 집사의 부친, 임태현
집사의 장인, 12교구 청양대구역) / 1일 별세, 3
일 장례

결혼

- 1. 적덕훈 군(장곡송 집사 · 서명숙 집사의 아들,
16교구)와 김연정 양(김기석 장로 · 문희순 권
사장의 딸, 2교구) / 11월(토) 13:00, 오월의 정월 2
송 인트컨벤션

전도 외향전 영성훈련(화장 · 부회장 · 전도부장)

- 일시: 5월(토) 5월(토) 주일 15:10~16:00
장소: 재교육관 407호
- 종동1·2·3부 연합예배**
일시: 12월(토) 주일 9:00~10:30
장소: 갈릴리움
- 총백 교회주변 전도**
일시: 여전도회 15월(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8월(토) 14:00
장소: 여전도회 & 각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전도회 1회 1회~30회 2회 30회~307회 3회 401회~407회

제9차 CMTC 추가 실시

종단원은 선교를 위한 하반기(9월~12월) 단기선교 자원을 위해 CMTC 추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시: 9월 6일 · 13일 · 20일(3주2회)

선교언어 훈련

- 일시: 매주일 4:00
장소: 재교육관 505호(내동문) 501호(캠퍼스) 504호(우크라이나) 507호(몽골) 508호(인도)
509호(라오스) 510호(베트남) 511호(방글라데시)

2009년도 하반기 흥행강좌식 선별

- 1. 선별기준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7년 6월 31일 이전 등록자
②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고 · 대 · 대학원 · 신학대학원 학생
③ 모든 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청기간: 5월(토) 16:30까지 3. 선별시점: 7월 17일(금) 13:00
4. 문의 및 신청장소: 교육과 ☎ 552-8200(☎ 472, 473)

새벽기도회 (7/6-7/12)

	6(월)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조종환	김백만/이선홍	김성현/김종민	정진호/서진원	송재호/강홍진	탁정현/이옥주	김성현/김말자
설교본문	막 14:53-65	골 1:1-6	골 1:7-18	골 2:1-15	골 3:1-13	골 3:14-20	행 1:1-11

예배 담당 (7/8-7/12)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7/8	수요 I 수요 II	모세의 간구(출 33:12-23) 김성관 목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골 1:1-9) 김장성 목사	정민권 김운장	이주 강 순	너 근심 걱정 말라(호산나 찬양대) 예수가 함께 계시니(실로암 찬양대)
7/10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이재현	원용철	예루살렘 찬양대 / 할렘루아 여성찬양단 / 테너 김원섭
7/12	주일 I 주일 II 주일 III 주일 IV 주일 V 주일잔치	예수님이 계신다 그걸(마 16:21-28) 이광현 목사 예수님이 계신다 그걸(마 16:21-28) 김익환 목사 예수님이 계신다 그걸(마 16:21-28) 김성관 목사 예수님이 계신다 그걸(마 16:21-28) 양재용 목사 예수님이 계신다 그걸(마 16:21-28) 안관현 목사 내가 가진 것(딤후 1:12) 김성관 목사	강희철 강홍진 장 훈 탁정현 유현철 유계진	원용철 박종호 최용호 김기현 김정환 박보신	예수 영광 버리사 외 / 바이올린 장연희(전임 연주자) 그 옛날 주가 계신 외 / 바이올린 장연희(전임 연주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외 / 첼로 박이영(아래 오케스트라) 주 예수님 내담에 오사 외 / 소프라노 박기연(현장 솔로리스트) 플로트 앙상블 / 임아누현 찬양대 / 정진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 화, 목요일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목요일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월요일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잔치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9: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잔치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일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	저녁 11:00	금요일 저녁 10:00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시에 드리는 일요일 1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에 동시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Russian Service, and Sri Lanka,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중등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1호
중등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등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 2부	오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년 3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년 4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망부	오전 11:00	복자관 지하1층
예배다우	오전 9:00(화) ~ 오후 1:00(토)	제1교육관 1층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토) 저녁 7:00~제9시	선교관 1층
제자교육양육부	오전 12:10	제1대 니콜
국회의원진료실	오전 11:00	제1대 니콜
영양조종사실	오전 8:30~오후 4:30	제1교육관 7층
출원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출원복지관

7월 중현 기도의 창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 ① 중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골 1:1)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들의 영육을 강건(왕하 2:23)하게 하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목숨의 투로(고전 2:2)로 사모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딤후 2:2)이 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골 1:6)이 있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천국입국이 약속(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예배 둘째 주 수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전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행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112로 믿게 하고, 예루살렘 찬양대(2: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중현의 재단(주식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남급시진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⑨ 2009년 여름성경회 및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사 16:1)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소식은 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시무장로

- 노광현 이훈 김중구 차진권 이종서
담당자 이재우 담당자 이재우 담당자 이재우 담당자 이재우
임무전 임무전 임무전 임무전 임무전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김기현 원용철 이현수 안관현 황인식
신복현 신복현 신복현 신복현 신복현
김기현 최유현 이기현 박익만 이태식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김기현 원용철 이현수 안관현 황인식
신복현 신복현 신복현 신복현 신복현
김기현 최유현 이기현 박익만 이태식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박만기 장진호 김익환 장 훈 이희식
담당자 이재우 담당자 이재우 담당자 이재우 담당자 이재우
임무전 임무전 임무전 임무전 임무전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김기현 원용철 이현수 안관현 황인식
신복현 신복현 신복현 신복현 신복현
김기현 최유현 이기현 박익만 이태식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 여전도사
유현철 김기현 장진호 장 훈 이희식
담당자 이재우 담당자 이재우 담당자 이재우 담당자 이재우
임무전 임무전 임무전 임무전 임무전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김기현 원용철 이현수 안관현 황인식
신복현 신복현 신복현 신복현 신복현
김기현 최유현 이기현 박익만 이태식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 사임부녀사 신복현
■ 전임지휘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연주자 장진호 노용현
■ 선 고 사 송요한